

<2008년 9월 28일 주일말씀>

하나님께 ()과 ()

본 문 시편 108장 1-7절, 시편 150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4-10절

참고성구 누가복음 2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편 108편 1-7절

하나님이여 내 ()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깟지어다 내가 ()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하리라

시편 150장 1-6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찌어다

그의 능하신 ()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찌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찌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찌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찌어다

()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4-10절

또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의 음성도 같고 많은 () 소리도 같고 큰 ()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옷은 ()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밋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참고 성구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로다 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의 ()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으로 하나님께 ()을 돌리라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을 돌리라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선생도 모두들 기도해주어서 영육 건강하게 하나님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며, 처한 환경에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을 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만나면 너와 나를 위해 정말 ()이 나도록 기도해주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나도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해주었으니 쉬지 말고 ()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가 아닌 이상, 꼭 ()주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고, 찬양하고, ()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하게 지내게 해주고, 학생이면 ()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 ()있게 일하고, 집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각자에게 나누어준 ()을 행하며 열심히 살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세상에서 사는데도 ()을 일으켜 보람 있게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불만 없이 ()함으로 행하며 사는데, 왜 넓은 세상에 살면서도 보람 있고 행복하게 주와 ()하며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걱정·근심·염려 속에 ()맘으로 살지요? () 모시고 제 ()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 타지 말고, () 받지 말고 하나님이 () 삶을 ()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계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없이 갑니다. 사람은 ()을 너무 잘 탑니다. () 의식 말고, () 것에 환경 타지 말고, (웃)입는 것에 환경 타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 타지 말고, 담대히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냐고요? ()처럼, 선생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리 () 것이 중하냐. 뭐 그리 () 것이 중하냐. 뭐 그리 () 이 중하냐. 뭐 그리 ()이 중하냐.”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뭐가 그리 중하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 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나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과 ()를 보고 말한다.”

또 물었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먹고 입고 사는 환경이 중하지, 뭐가 그리 ()?”

이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을 듣고 ()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하다. 그리하면 ()도 잘 되고 ()도 잘되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물으면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좋은 ()에서 좋은 ()을 입고, 좋은 ()을 먹으며, 좋은 ()에 살아도 ()이 썩어서 행실도, 영도 () 삶을 살면 인생에 아무런 ()이 없습니다. 주를 믿고 사랑하며 그 ()대로 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 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살게 한 존재자 ()을 사랑하고 ()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만든 ()한 세상에 가서 살며 가장 ()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맘대로 ()을 중심하여 살다가 ()받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에 가서 살게 되면 그것이 ()입니까? 정말 ()이 인정하고 주님이 ()해주는 ()을 살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제 맘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인생 ()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동안 하늘 ()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과 ()대로 받아 그것으로 ()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 없이, 많이, () 없이 하늘위해 자기 ()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을 후회하듯, 나이가 든 후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자들은 ()하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10대에 못한 것, 20대에 () 안 해 보았어요? 20대에 못한 것, 30대에 () 안 해 보았어요? 30대에 못한 것, 40대에 () 안 해 보았어요? 40대에 못한 것, 50대에 () 안 해 보았어요? () 안 해본 자는 아직도 ()을 위해 ()을 살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도 욕이 ()하지 않고, 죽은 후에도 ()이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별써 2008년 10월이 옵니다. 10월은 주님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갓은 핏박과 모진 환난이 몰아치고, ()을 씌우고 모함을 해대며 ()을 해도 열심히 ()하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에게 잡히기 전까지 외치셨습니다. 절대 의지를 꺾지 않고, ()치도 않고, () 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도 않고, 절대 하나님의 ()대로 사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포악한 자, 악평자, 누명을 씌우는 자들로 인하여 ()를 지고 만민을 위해 대신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하여 어디 가서 ()도 못하고, 그 대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을 풀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뜻이 ()에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지구촌을 기독교 ()으로 떠나가게 했습니다.

10월은 “하나님께 () 돌리는 달”입니다. 예술과 ()으로 영광 돌리며, 생명들을 주님처럼 ()하며 한 명씩 바쳐 ()의 영광을 돌리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으니 10월은 전문 예술인뿐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께 () 돌리기를 바랍니다.

선생도 전도하니 모두 ()하기 바랍니다. 눈을 한 달 동안 감고 다녀도 전도하고 싶은 ()이 있으면 ()명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바닷가에 ()같이 많은 자들을 전도하지 않았지?’ 하며 이 세상에서나 죽은 후에 ()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할 때 ()하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한 것과 ()한 것을 하나님은 속히 ()준다고 하셨습니다. 10월은 특별히 ()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대하며 그의 손을 잡고 ()되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양팔 벌려 ()명이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을 만들어 춤추고 노래하고 나팔 불며 다윗처럼 ()돌리며 정기적으로 ()과 주님을 위해 옛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춤추고 ()하고 풍악을 울리듯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였기에 ()을 개발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명동에 오면 꼭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환경의 ()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 걱정 안 되도록 모두 자기 ()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분복이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과 ()입니다. 지체와 같이 받은 ()로서 사명을 행하여 ()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손은 손으로서 ()을 행하여 복을 ()사는 것입니다.

발이 손이 되려 할 필요 없이 발로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을 해야 (), 그에 해당되는 ()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사명과 복을 탐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각 지체들은 자기 지체로 ()하며 평생 사는 것입니다.

머리는 각 지체를 ()으로 모두 ()하고 좋아하며 관리해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가 되시니 각 지체들을 그같이 대해주시고 사랑하시고 ()해주십니다. 선생도 여러분 모두를 각각의 지체로 보고 챙기니, 다른 지체를 () 말고 자기 사명과 ()에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니다.

선생이 각 지체들인 섭리인들을 각각 챙기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선생에게 ()가 갑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지체 하나 병들면 결국 자기가 ()이지요? 섭리 전체는 모두 자기 ()입니다. () 안 하는 것 같아도 지체 라면 어디에나 피가 돌고, 영양 공급이 됩니다. 운동하면 온몸에 ()을 미 쳐 건강하게 됩니다. 손이 안 가는 위·폐·대장·소장·신장·간 모두 ()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들도 ()로써 모두 관리합니다.

“나는 선생과 안 친하다. 줄이 없다. 백이 없다.” 하지 마요. 고무줄 없고 빨랫줄 없어도 모두 한 ()라서 피 공급이 되고 영양 공급이 되듯이, 섭리인 모두에게 () 공급이 되고 은혜와 () 공급이 되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요. 믿습니까?

“선생과 친하지 않다. 줄이 없다.” 하는 자가 있으면 ()해요. 꿈에 보여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안 친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 여기고 좋아하니 걱정 마요. ()과 친한 것이 문제이고, 예수님과 친한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듣고 ()하면 ()같이 친한 자입니다.

지체는 옆 지체로 인하여 () 안 됩니다. 한 다리가 편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뒷다리는 편하지만 밑에 눌린 다리는 저리고 편치 않습니다. 머리가 편하기 위해 팔베개하고 자보세요. 얼마 안 가서 팔이 저려 못 견딥니다. 할 수 없이 계속 못합니다. 머리만 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게 하고 다른 ()가 불편하면 결국 자기도 ()하여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이 ‘()’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체는 각각 ()로 인하여 편해야 되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 다른 ()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기 편하기 위해 밑에 사람을 삶의 ()로 쓰면 안 됩니다.

자기 편하려면 ()가 편하게 해야 됩니다. 팔이 편하려면 팔 ()하여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측 팔이 편하려고 좌측 팔보고 안마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리가 편하려 팔에게 주물러 달라고 할 것 없습니다. ()

가 운동해야 됩니다. 교역자도 ()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자기를 편하게 하며 살고, ()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10월은 하나님께 ()과 ()를 돌려라. 그러면 땅에 ()가 온다. 영광 돌릴 때는 ()의 영광도 돌려라. ()해야 한다.”

10년 만에 왔으니 얼마나 전도했는지 보겠어요. 각자 공적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은 ‘()하는 달’입니다. ‘()하는 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는 것과 ()을 이루어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싸우지 말고 ()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섭리 전체는 누가 악평하든지 수군거리면 교단에 즉시 ()하고, 목사님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마는 자는 악평하고 수군거리는 자들과 () 자입니다. 자기는 악평을 안 믿고 믿음이 굳건해서 같이 투덜대고 악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말지만, 악평하고 불만 하는 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결국 끌고 ().

앞으로 그같이 하는 자들은 계획적으로 섭리에서 () 것입니다. 평생 안 () 것입니다. 장년부로도 안 받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음식과 과일은 다시 만들어 먹지 못합니다.

섭리 전체가 섭리를 ()하는 사명자들이 되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섭리사가 ()해집니다. 모두 ()를 잘 지켜야 됩니다.

10월의 ()를 달성하고, 하늘의 ()에 따라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서로 화답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답

<2008년 9월 28일 주일말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본 문 시편 108장 1-7절, 시편 150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4-10절

참고성구 누가복음 2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편 108편 1-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
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깎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
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
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
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
며 숙곳 골짜기를 (척량)하리라

시편 150장 1-6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
할찌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
할찌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찌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찌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찌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4-10절

또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밋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참고 성구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선생도 모두들 기도해주어서 영육 건강하게 하나님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며, 처한 환경에서 정말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도록 (기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만나면 너와 나를 위해 정말 (눈물)이 나도록 기도해주었냐고 물어 볼 것입니다. 나도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도)해주었으니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불의)가 아닌 이상, 꼭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고, 학생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 (재미)있게 일하고, 집에서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각자에게 나누어준 (분복)을 행하며 열심히 살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세상에서 사는데도 (희망)을 일으켜 보람 있게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행하며 사는데, 왜 넓은 세상에 살면서도 보람 있고 행복하게 주와 (동행)하며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걱정·근심·염려 속에 (괴로운) 맘으로 살지요? (주님) 모시고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환경) 타지 말고, (제재) 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시계)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계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변함)없이 갑니다. 사람은 (환경)을 너무 잘 탑니다. (환경) 의식 말고, (먹는) 것에 환경 타지 말고, (옷) 입는 것에 환경 타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 타

지 말고, 담대히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냐고요? (예수님)처럼, 선생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리 (먹는) 것이 중하냐. 뭐 그리 (입는) 것이 중하냐. 뭐 그리 (환경)이 중하냐. 뭐 그리 (집)이 중하냐.”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뭐가 그리 중하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나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너)를 보고 말한다.”

또 물었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먹고 입고 사는 환경이 중하지, 뭐가 그리 (중합니까)?”

이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하다. 그리하면 (육신)도 잘되고 (영)도 잘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물으면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집)에 살아도 (정신)이 썩어서 행실도, 영도 (썩은) 삶을 살면 인생에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주를 믿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이상) 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살게 한 존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살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맘대로 (세상)을 중심하여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서 살게 되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제 맘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인생 (손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일생)동안 하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공적)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일)과 (행실)대로 받아 그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많이, (미련) 없이 하늘위해 자기 (인생)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을 후회하듯, 나이가 든 후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자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10대에 못한 것, 20대에 (후회) 안 해보았어요? 20대에 못한 것, 30대에 (후회) 안 해 보았어요? 30대에 못한 것, 40대에 (후회) 안 해 보았어요? 40대에 못한 것, 50대에 (후회) 안 해보았어요? (후회) 안 해본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도 욕이 (후회)하지 않고, 죽은 후에도 (영)이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벌써 2008년 10월이 옵니다. 10월은 주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갓은 핍박과 모진 환난이 몰아치고,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해대며 (악평)을 해도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에게 잡히기 전까지 외치셨습니다. 절대 의지를 꺾지 않고, (낙심)치도 않고, (양)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싸우지)도 않고,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포악한 자, 악평자, 누명을 씌우는 자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만민을 위해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억울)하여 어디 가서 (화풀이)도 못하고, 그 대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을 풀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지구촌을 기독

교 (복음)으로 떠나가게 했습니다.

10월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입니다. 예술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생명들을 주님처럼 (전도)하며 한 명씩 바쳐 (생명)의 영광을 돌리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으니 10월은 전문 예술인뿐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선생도 전도하니 모두 (전도)하기 바랍니다. 눈을 한 달 동안 감고 다녀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 명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들을 전도하지 않았지?’ 하며 이 세상에서나 죽은 후에 (후회)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기도)한 것과 (소원)한 것을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준다고 하셨습니다. 10월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가까이) 대하며 그의 손을 잡고 (하나) 되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양팔 벌려 (500)명이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을 만들어 춤추고 노래하고 나팔 불며 다윗처럼 (영광) 돌리며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옛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춤추고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듯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약속)하였기에 (월명동)을 개발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명동에 오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환경의 (위치)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 걱정 안 되도록 모두 자기 (분복)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분복이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사명)과 (복)입니다. 지체와 같이 발은 (발)로서 사명을 행하여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손은 손으로서 (사명)을 행하여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발이 손이 되려 할 필요 없이 발로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해야 (기쁘고), 그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사명과 복을 탐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각 지체들은 자기 지체로 (만족)하며 평생 사는 것입니다.

머리는 각 지체를 (개성)으로 모두 (사랑)하고 좋아하며 관리해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머리)가 되시니 각 지체들을 그같이 대 해주시고 사랑하시고 (관리)해주십니다. 선생도 여러분 모두를 각각의 지체로 보고 챙기니, 다른 지체를 (부러워) 말고 자기 사명과 (존재)에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각 지체들인 섭리인들을 각각 챙기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선생에게 (손해)가 갑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지체 하나 병들면 결국 자기가 (손해)이지요? 섭리 전체는 모두 자기 (지체)입니다. (관리) 안 하는 것 같아도 지체라면 어디에나 피가 돌고, 영양 공급이 됩니다. 운동하면 온몸에 (영양)을 미쳐 건강하게 됩니다. 손이 안 가는 위·폐·대장·소장·신장·간 모두 (머리)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들도 (기도)로써 모두 관리합니다.

“나는 선생과 안 친하다. 줄이 없다. 백이 없다.” 하지 마요. 고무줄 없고 빨랫줄 없어도 모두 한 (지체)라서 피 공급이 되고 영양 공급이 되듯이, 섭리인 모두에게 (말씀) 공급이 되고 은혜와 (기도) 공급이 되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요. 믿습니까?

“선생과 친하지 않다. 줄이 없다.” 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요. 꿈에 보여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안 친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친하게) 여기고 좋아하니 걱정 마요. (하나님)과 친한 것이 문제이고, 예수님과 친한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 (애인)같이 친한 자입니다.

지체는 옆 지체로 인하여 (편하면) 안 됩니다. 한 다리가 편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윗다리는 편하지만 밑에 눌린 다리는 저리고 편치 않습니다. 머리가 편하기 위해 팔베개하고 자보세요. 얼마 안 가서 팔이 저려 못 전됩니다. 할 수 없이 계속 못합니다. 머리만 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게 하고 다른 (지체)가 불편하면 결국 자기도 (불편)하여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이 ‘(형제)’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체는 각각 (자기 수고)로 인하여 편해야 되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 다른 (지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기 편하기 위해 밑에 사람을 삶의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자기 편하려면 (자기)가 편하게 해야 됩니다. 팔이 편하려면 팔 (운동)하여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측 팔이 편하려고 좌측 팔보고 안마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리가 편하려 팔에게 주물러 달라고 할 것 없습니다. (자기)가 운동해야 됩니다. 교역자도 (안마)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운동)해요. 자기가 자기를 편하게 하며 살고, (폐)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10월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라. 그러면 땅에 (평화)가 온다. 영광 돌릴 때는 (생명)의 영광도 돌려라. (전도)해야 한다.”

10년 만에 왔으니 얼마나 전도했는지 보겠어요. 각자 공적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은 ‘(기도)하는 달’입니다. ‘(화목)하는 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과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섭리 전체는 누가 악평하든지 수군거리면 교단에 즉시 (보고)하고, 목사님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마는 자는 악평하고 수군거리는 자들과 (똑같은) 자입니다. 자기는 악평을 안 믿고 믿음이 굳건해서 같이 투덜대고 악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말지만, 악평하고 불만 하는 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결국 끌고 (나갑니다).

앞으로 그같이 하는 자들은 계획적으로 섭리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평생 안 (받을) 것입니다. 장년부로도 안 받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음식과 과일은 다시 만들어 먹지 못합니다.

섭리 전체가 섭리를 (수호)하는 사명자들이 되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섭리사가 (평안)해집니다. 모두 (섭리사)를 잘 지켜야 됩니다.

10월의 (목표)를 달성하고, 하늘의 (방향)에 따라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서로 화답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